

신명기와 요시아 종교개혁

장 일 선*

I. 머리말

구약성서 중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특히 왕조역사를 기술한 책으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있다. 열왕기하 22~23장에는 남왕국 유다의 왕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기사가 실려있다. 이 기록에 의할것 같으면 요시아 왕은 야훼의 지방신당을 폐지하고 예루살렘 중앙성소를 주장했으며 앗시리아의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청결케 하는 도중에 율법서를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은 이 율법서의 말씀에 준해 참회를 하며 크게 유월절을 지킨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열왕기서의 토대를 근거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역사적 상황이 무엇이며 또 그 종교개혁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요시아가 발견한 율법서가 어떤 책이며 그 책과 요시아 종교개혁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신명기와 요시아 종교개혁과의 상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승사적인면에서 북왕국과 남왕국의 전승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주전 721년 북왕국의 폐망과 더불어 북왕국의 전승이 남왕국으로 우회되어 내려와 히스기야-므낏세-요시아로 이어지는 남왕국의 정치적 맥락에서 우리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절정이 앗시리아로 흘러서 정치적인 독립이라는때 있었다는 명제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전승사적인면에 치중하여 신명기가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명제를 규명해 보고자하며, 끝으로 신명기서의 의미도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란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면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II. 시대적 배경

북왕국 이스라엘은 721년 앗시리아의 사르곤 II세에 의하여 폐망되었다. 앗시리아는 주전 8세기 디달릿밀해셀 III세, 살마네셀 V세, 그리고 사르곤

* 한신대 교수, 구약학 전공

II세등 강자가 나타나 팔레스타인 구역의 여러나라들을 정복하여 그 주민들을 온 사방에 이산시키고 그 땅을 앗시리아의 영토로 만드는 외교정책을 펴왔다.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사마리아의 국민들은 북메소포타미아 구역에 흩어지게 되고 다른 구역 국민들이 사마리아에 정착하여 사마리아가 앗시리아의 한 주로 변하게 되었다.

북왕국이 꽤망한 뒤렵 남왕국 유다에는 히스기야가 있었는데 그는 막대한 조공을 바침으로써 겨우 명백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사르곤 II세 이후 앗시리아는 약간더 침체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이런 약점을 틈타 도처에서 반란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집트에서는 피안키가 25왕조를 시작하여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의 여러나라들에게 앗시리아에 반기를 들것을 종용하여 713년 블레셋, 유다, 에돔,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사르곤에게 철퇴를 얻어 맞게 되었다.

앗시리아군대의 전력을 본 이집트는 뒤로 물러서서 물러서고 말았다. 히스기야는 703년 바빌론의 마르дук아발이라나가 반란을 일으키자 거기에 합세하여 반기를 들었다. 이때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각오하고 기론강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이는 실로암 우물을 파파한 것이다. 앗시리아의 산헤립은 701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를 새장속에 갇힌 새처럼 가두어 두었다. 히스기야는 막중한 조공을 바침으로써 그 뒤를 존속할 수 있었다. 히스기야는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산헤립이 678년 예루살렘에 진격할 때 사망하게 되었다.

히스기야의 대를 이은 므낫세는 처음부터 자진해서 천앗시리아 외교정책을 떠나갔다. 그는 앗시리아의 하늘 별들신을 섬기며, 지방산당을 부활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풍요제의를 거행하며 반대하는 예언자들을 처단하였다. 므낫세의 40년간 폭정하에서 야웨 숭배자들은 많은 수난을 겪게 된 것이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2년만에 암살된 것은 다시 쇠약해진 앗시리아에게서 독립을 해 보려고 꿈꾸던중 궁중내의 반앗시리아파 세력의 소행이라고 볼수있다. 아몬의 사후 8세된 그의 아들 요시아가 즉위하게 되었다.

요시아의 개혁은 이방제의와 관습을 타파하는 것이었으며, 그는 또 중앙성소의 단일화를 주장하였다. 요시아는 이스라엘의 제의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외의 모든 높은 곳에서 거행된 야웨 신당들을 헐어버리고 불법화함으로써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수 있게한 것이다. 요시아는 종교

개혁의 일환으로서 북왕국의 첫번째 왕 여로보암이 벵엘에 건립한 높은곳을 파괴하기까지 하였다. 요시아가 앗시리아의 통치영역에까지 손을 펼쳐 거룩한영토를 확장시킬수 있었던 것도 므낫세 시대 절정에 이르렀던 앗시리아 세력이 627년 앗수르바니팔의 죽음과 함께 전국적으로 혼돈기에 빠지게 된 때문이다. 오메드는 앗시리아 중앙 정부의 쇠약이 대제국 내에 있던 여러 지배 국가들의 독립운동의 기운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고 보는데, 이 무렵 앗시리아 동부에서는 나보틀라달이 앗시리아 궁중의 불안정을 틈타 626년에 바빌론 왕국을 건설하고 서부에서는 이집트의 삼메티루스가 독립을 선언했던 것이다. 오메드는 또 북부에서는 카스피아와 흑해 근처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대거 메소포타미아로 침입해 왔고 또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부족들이 사막으로부터 반월형 곡창구내에 쳐들어와 앗시리아의 세력 균형에 큰 타격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요시아의 개혁은 이와같은 국제정세의 변화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II. 북왕국 전승.

1805년 드베테는 요시아가 성전을 청소하다 발견한 율법서가 현재 신명기의 12-26장에 해당되는 신명기 법전이라는 가설을 제창하였는데, 이것이 학계에서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신명기라고 부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원신명기가 예루살렘 성전안에서 발견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북왕국의 전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승사적으로 볼때 구약성서 전반을 통해 흘러내려오는 야웨종교에 관한 신학적인 전승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그 원천은 모세로 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세를 중심한 출애굽- 시내전승이 부족동맹 시대에는 중앙성소의 법궤를 중심으로 이어져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족시대의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50년 경 아페 전투에서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빼앗긴 다음 이스라엘의 첫번째 왕 사울때 까지도 법궤는 시골 구석 어느 농부의 집에 파묻혀 있게 되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예루살렘은 부족동맹시대의 중앙성소이었던 실로의 후계지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소위

남왕국의 왕조 신학 전승이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한편 북왕국에서는 실로에 까지 이어졌던 모세의 야웨종교 전승이 베크가 예루살렘에 이전되는 것을 계기로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엘리야시대때 지하수가 샘물이 되듯 밖으로 터져 나왔다고 본다. 엘리야와 바알선지들과의 대결을 볼프는 E문서의 배경으로 보고있다. 현재의 신명기와 E전승과의 유사점이 많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엘리야 시대에 잠시 빛을 보였던 야웨 전승은 다시 지하수로 잠식 되었다가 아모스와 호세아 시대에 또 다시 노출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신명기와 호세아와의 유사성도 잘 알수 있다.

니콜슨은 북왕국이 멸망할 무렵 그곳에서 활동하던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망명하여 히스기야 종교개혁에 가담하여 개혁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본다. 클레멘츠는 니콜슨의 견해를 발전시켜 구태여 예언집단에 국한시키지 않고 "북왕국 종교전승의 후예들"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망명 집단이 가지고 온 것이 기본적으로 원신명기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 히스기야는 이들을 환영하였으며 앗시리아로 부터 독립을 꾀하기 위해서는 야웨종교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기에 적극적으로 종교개혁을 추진했다고 보는 것이다. 히스기야는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느 누구 보다도 끈질기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 했지만 때를 잘못 타고 난 탓인지 끝내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므낫세 치하에서는 앗시리아 종교가 국가 종교로 바뀌어진 만큼 야웨종교가 탄압을 받게 되었으며, 바로 이 무렵 히스기야 시대때 종교개혁을 추진하던 이들이 그들의 종교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예루살렘 성전안에 숨겨 둔 것이 요시아 시대 때 빛을 보게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요시아가 정치적인 독립의 선행조건으로 앗시리아의 신을 제거하고 야웨종교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가 발전한 율법서는 히스기야 종교개혁가들의 정치 백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IV. 신명기의 의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는 그 서두에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연설 문구(1:1)를 통해 작품의 무대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 주인공은 모세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신명기의 문맥을 통해서도 그 시

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나긴 광야 유랑의 마지막 폐로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인 13세기 초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신명기서의 편집과 형성은 621년 요시아왕의 종교개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전 7세기의 어느 설교가는 주전 13세기의 역사적 무대에서 모세로 분장하고 나타나 실은 7세기 당시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포한 것이다.

주전 7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것은 앗시리아의 침공이후 초토화된 유다가 땅과 나라를 모두 빼앗길 것 같은 위협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마이어드의 표현대로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사건들”이 빚어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큰 당면 과제였으며, 신명기 설교가는 그 해결책을 고대의 전승속에서 찾았다. 고대의 법전도 물론 과거의 민족 역사로 현재 위기 해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설교가는 그래서 모세의 입을 빌려 청중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중대한 메시지를 선언한 것이다.

신명기는 그 책 제목이 건조한 법이나 규정등을 암시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나, 신명기의 내용을 잘 파악해 보면 신약성서를 이해하는데 신명기 만큼 중요한 책도 없을 것임을 잘 알수 있다. 신명기는 신약에서 83번이나 인용된 책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공생애 시작전 광야시험때 신명기를 인용하십시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으며 그밖에도 신명기를 즐겨 사용하였다. 신명기는 야웨의 성품, 이스라엘의 선택, 계약수립, 율법과 은총, 예배, 윤리적 생활 등 성서의 중심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이라는 문지방을 건너 가나안이라는 미래의 세계로 지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데이미르는 문지방을 건너다는 것은 전환의 위기를 뜻하는 만큼 신명기는 전통적 허무의 붕괴로부터 새로운 우주계발과 생명과학의 발전이라는 전환시기의 위기에서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V. 맺는말

우리는 위에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히스기야 시대 이래 출몰 앗시리아의 정치적인 골때를 벗어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서, 이를 추진시키기 위한 원동력이 북왕국에서 망명해 온 아웨종교의 신봉가들이 히스기야 종교개혁과 합세하여 개혁의지의 프로그램을 작성했으며, 이것이 므낫세 시대 때 지하로 잠적되면서 신명기라는 종교적 백서로 나타났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신명기는 비록 13세기의 역사적 무대를 설정하고 있지만 실은 당시대인들에게 준 메세지로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아웨종교의 회복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시대 역시 주전 7세기 남왕국 유다의 형편과 별로 다를바 없으며, 우리 역시 신명기서가 나옴은 위기상황에 처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세지들을 필요로 있다.

루터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여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기념행사가 벌어지고 있으며, 최신 Time 잡지에서는 루터를 가리켜 “그의 시대와 우리 시대의 거인”이라고 대서 특필한 바 있다. 루터는 위텐버그 성문에 95조항을 내 붙임으로 우리가 그의 개혁의지를 다시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조금더 거슬러 올라가 요시아 개혁때 요시아가 높이 치켜 올린 율법서인 신명기의 메세지가 오늘 어두운 우리의 시대에 비친 환한 랫불이 되도록 그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